산업융합연구 제20권 제11호 pp. 41-47, 2022
ISSN 2635-8875 / e-ISSN 2672-0124
DOI : https://doi.org/10.22678/JIC.2022.20.11.041

비대면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대학 신입생들의 학습 감정 연구: 녹화 강의와 실시간 화상수업을 중심으로

박옥희*
배재대학교 기초교육부 교수

A Study on University Freshmen's Academic Emotions for Untact General English Class: Focused on Pre-recorded Lecture vs. Real Time Online Class

Ok Hee Park*
Professor, Ju Si Gyeong Liberal Arts College, Pai Cha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COVID-19의 확산으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녹화 강의 및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전환된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한 대학 신입생들의 학습 감정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B대학 신입생 170명을 대상으로 학습감정검사지(Academic Emotion Questionnaire; AEQ)을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라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긍정의 감정은 녹화 강의수업에서, 부정의 감정은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더 높았다. 둘째,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 감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 < .01$), 수준과 무관하게 긍정의 감정은 녹화 강의에서 높았고, 부정의 감정은 실시간 화상수업에서 더 높았다. 셋째, 신입생들의 전공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 감정은 긍정의 감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동영상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의 성별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 감정은 부정의 감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온라인 수업유형과 무관하게 여학생의 부정 감정이 남학생의 부정 감정보다 높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 및 교육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키워드 :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유형, 녹화 강의, 실시간 화상 수업, 학습 감정, 교양영어, 대학 신입생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academic emotions of university freshmen depending on the type of online class(pre-recorded lecture vs. real time online class) that they took during the COVID-19 lockdown. 170 freshmen participated in the survey based on the 'Academic Emotion Questionnaire(AEQ)', and the statis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research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felt higher positive emotions for pre-recorded lecture than for real time online class, and higher negative emotions for real time online class than for pre-recorded lecture($p < .01$). Secondly, participants felt different emotions depending on English level($p < .01$). Thirdly, participants felt different emotions depending on their majors($p < .01$). Students majoring in science & engineering felt higher positive emotions than those in humanities & social studies in pre-recorded lecture class. Fourthly, participants felt different emotions depending on gender($p < .01$). Female students felt higher negative emotions than male students. Finally,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Online class style, Pre-recorded lecture, Real time online class, Academic emotions, General English, University freshmen

1. 서론

코로나(COVID-19) 팬데믹 상황이 몰고 온 사회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첨예하게 다가왔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로 국내 대학은 지난 이 년 간 거의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

*Corresponding Author : Ok Hee Park(okpark@pcu.ac.kr)
Received July 27, 2022
Revised September 8, 2022
Accepted November 20, 2022
Published November 28, 2022

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에도 교육방식이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했던 학습자들의 학습 감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감정은 학습 동기를 추동하고 학습 성과에도 깊이 관여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1].

'학습 감정(academic emotions)'는 심리교육학자인 R. Pekru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R. Pekrun은 학습과 성취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학습자의 학습과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 감정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학습감정검사지(Academic Emotion Questionnaire; AEQ)를 개발하였다[2]. AEQ는 크게 긍정의 감정(positive emotions)과 부정의 감정(negative emotions)의 두 축으로 나뉘어져 있다. 예컨대, 긍정의 감정에는 즐거움(enjoyment), 희망(hope), 자부심(pride), 안도감(relief) 같은 감정과 부정의 감정에는 분노(anger), 불안(anxiety), 창피함(shame), 절망(hopelessness), 지루함(boredom) 등과 같은 감정이 놓인다. AEQ를 이용한 선행연구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고, 이 감정이 학습자들의 인지와 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업의 결과 및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심리학에서 시작된 학습감정 연구는 이후 다른 학문 영역으로 확산되어 국내외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김은지와 양명희(2011)[3]는 서울과 지방소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감정을 조사하여 서울과 지방 간, 강남과 강북 간, 그리고 학년과 성별에 따라서도 학습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의 학습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높았다.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지방보다 서울이, 강북보다 강남지역 학습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신나민과 박종향(2019)[4]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수업시간에 주로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인지와 이 감정이 성별과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유쾌한 감정보다는 불쾌한 감정이 유의하게 높았고, 성별과 계열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이공자연계열의 부정적인 감정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영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습 감정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병선과 박옥희(2019)[1]는 서로 다른 지방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에서 교양 영어 수업을 듣는 신입생들의 학습 감정을 조사한 다음, 부정의 감정과 긍정의 감정이 높은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두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은 부정의 감정보다 긍정의 감정이 높았다. 또한 두 대학 간, 계열 간 학습 감정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옥희(2021)[5]는 광역시 소재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영어 수업에서 수준별로 진행된 원어민과 내국인 교수의 팀티칭수업에서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학습 감정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상급반 학생이 초중급반 학생들보다 부정의 감정이 유의하게 높았고, 내국인 교수 수업보다 원어민 교수 수업에서 긍정의 감정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사소통활동 유형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조사[6-8], 대면과 비대면 수업 만족도 비교[9], 교수자와 학습자 인식 비교[10] 등 설문조사 및 면담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된 교양 영어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감정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교양 영어 수업에서 두 종류의 온라인 수업 유형: 녹화 강의(pre-recorded lecture)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real time class)을 경험한 대학 신입생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영어 학습 감정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2. 영어 수준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3. 전공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4. 성별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다를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위치한 4년제 B사립대학에서 교

양영어 수업을 두 학기 수강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B대학은 2학점 교양영어 수업을 1학기와 2학기에 교양필수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 초에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 진단 테스트를 실시하여,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봄 학기 교양영어수업은 전면 녹화 강의로, 그리고 가을학기에는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진행되었다. 1학기 말과 2학기 말에 실시된 설문에 응한 345명의 수강생 중 1학기와 2학기 두 학기 모두 연구자의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하고, 응답이 성실하게 이루어진 170명의 자료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 양식은 구글 설문을 이용하였고, 설문 기간은 1학기는 2020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2학기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일 주일씩 진행되었다.

2.2 연구도구

신입생들의 학습감정을 측정할 도구로 Pekrun 외(2002)[2]가 개발한 학습감정검사지(AEQ)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먼저, 학습자들이 느끼는 감정어 채취를 위해 1학기 말과 2학기 말에 각각 온라인 수업에 대한 좋은 감정, 느낌, 기분과 나쁜 감정, 느낌, 기분 등을 생각나는 대로 각각 5개 이상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나민과 박종향(2019)이 지적한대로 같은 상황에서 경험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표현하는 어휘가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이다[4]. 이렇게 모아진 1차 자료를 박인조와 민경환(2005)[11]이 추출한 한국어의 대표적인 감정 단어 목록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따분하다', '지겹다', '시간이 안 간다'등의 표현은 '지루하다'의 감정어로 묶었다. 이렇게 하여 추출된 긍정의 감정어 상위 5개는 '편하다(comfortable)', '편리하다(convenient)', '재미있다(fun)', '만족스럽다(satisfied)', '활기차다(alive)'였고, 부정의 감정 상위 5개는 '지루하다(boring)', '귀찮다(annoying)', '피곤하다(tired)', '긴장된다(nervous)', '게을러진다(lazy)'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학습 감정 검사지(AEQ)는 긍정의 감정 5문항과 부정의 감정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7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로 조사되었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도구는 SPSS 19.0 버전을 사용하였다. 학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하였다. 두 가지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과 부정의 학습 감정의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어 수준별, 전공별, 성별 간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감정은 일반 선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설문응답자의 특성

Table 1은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빈도분석으로 알아본 결과이다. 영어 수준별로는 초급반이 124명(72.9%), 중급반이 46명(27.1%)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78명(45.9%), 여학생이 92명(54.1%)이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79명(46.5%), 자연이공계열이 91명(53.5%)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0)

Variables		Frequency(%)
English Level	Beginner	124(72.9)
	Intermediate	46(27.1)
Gender	Male	78(45.9)
	Female	92(54.1)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79(46.5)
	Science & Engineering	91(53.5)

3.2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감정 결과

연구 가설 1.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응 표본 t 검정결과 대학 신입생들의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학습자들의 교양 영어 녹화 강의 수업(59.3)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실시간 화상 수업(49.7)보다 평균 9.6정도 더 높았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실시간 화상수업(33.7)이 녹화 강의 수업(30.3)보다 평균 3.4정도 더 높았다.

감정별로 살펴보면 긍정의 감정은 녹화 강의가 실시간 화상 수업보다 더 '편리하고(convenient)'(평균 3.7점 이상), 더 '만족스럽고(satisfied)'(평균 3점 이상), 더 '재미있다(fun)'(평균 2.3점 이상)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부정의 감정은 실시간 화상 수업이 녹화 강의 보다 더 '긴장되고(nervous)'(2.6점 이상), 더 '피곤하고(tired)'(1.5점 이상), 더 '귀찮지만(annoying)'(0.8점 이상), 녹화 강의수

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보다 더 '게을러진다(lazy)'(1.5점 이상)라고 응답하였다.

Table 2. Freshmen's academic emotions depending on pre-recorded lecture vs. real time online lecture (N=170)

Emotion		M	SD	SE	t	*p*
Positive	Pre-recorded	59.3	13.0	.99	6.49	〈 .01
	Realtime online	49.7	15.1	1.15		
Negative	Pre-recorded	30.3	12.6	.96	-2.5	.014
	Realtime online	33.7	12.9	.98		
Comfortable	Pre-recorded	9.2	2.9	.22	1.76	.080
	Realtime online	8.7	3.1	.23		
Convenient	Pre-recorded	11.4	2.8	.21	11.1	〈 .01
	Realtime online	7.7	3.5	.26		
Fun	Pre-recorded	10.4	3.1	.24	6.58	〈 .01
	Realtime online	8.1	3.3	.25		
Satisfied	Pre-recorded	11.6	2.8	.21	8.85	〈 .01
	Realtime online	8.6	3.4	.26		
Alive	Pre-recorded	8.7	3.2	.24	-.51	.606
	Realtime online	8.9	3.2	.24		
Boring	Pre-recorded	6.4	3.0	.23	-.57	.565
	Realtime online	6.6	2.8	.21		
Annoying	Pre-recorded	4.8	2.6	.20	-2.8	〈 .01
	Realtime online	5.6	2.8	.21		
Tired	Pre-recorded	4.6	2.7	.20	-4.6	〈 .01
	Realtime online	6.1	3.4	.26		
Nervous	Pre-recorded	4.6	2.8	.21	-7.6	〈 .01
	Realtime online	7.2	3.6	.27		
Lazy	Pre-recorded	6.0	3.3	.25	4.82	〈 .01
	Realtime online	4.5	2.5	.18		

연구 가설 2.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초급 vs. 중급)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선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고(종속 변수: 학습감정, 개체 내: 녹화 강의와 실시간 화상수업방식, 개체 간: 수준), 그 결과는 Table 3부터 8과 같다.

Table 3. Tests of within-subjects effects (level & positiv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Teaching style	7036.8	1	7036.8	37.9	〈 .01
teaching style*level	137.9	1	137.9	.74	.39
error	31175.7	168	185.6		

Table 4.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level & positiv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Intercept	780600.	1	780600.	3750.4	〈 .01
Level	458.6	1	458.64	2.17	.141
error	35249.6	168	2090.8		

Table 5. Estimated marginal means (level & positive)

Level(n)	Mean	Std. error	Teaching style	Mean	Std.error
Beginner(124)	55.2	.92	Pre-recorded	59.1	1.13
Intermediate(46)	52.6	1.51	Realtime online	48.8	1.30

Table 3, 4, 5는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영어 수준별 긍정의 감정을 일반 선형 모형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1). 그러나 수준간(between factor, 초급 vs. 중급)과 수준과 수업의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들의 긍정의 감정은 영어 수준과 무관하게 녹화 강의 수업(59.1)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48.8)보다 평균 10.3점정도 더 높았다.

Table 6, 7, 8은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영어 수준별 부정의 감정을 일반 선형 모형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그러나 수준간(between factor, 초급 vs. 중급)과 수준과 수업의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들의 부정의 감정은 영어 수준과 무관하게 실시간 화상 수업(33.9)에서 녹화 강의 수업(30.3)보다 평균 3.6점정도 더 높았다.

Table 6. Tests of within-subjects effects (level & negativ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Teaching style	1557.3	1	1557.3	10.4	〈 .01
teaching style*level	689.1	1	689.1	4.6	.03
error	25269.2	168	150.4		

Table 7.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level & negativ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Intercept	278070.	1	278070.	1613.6	〈 .01
Level	45.5	1	45.5	.264	.608
error	28951.	168	172.3		

Table 8. Estimated marginal means(level & negative)

Level(n)	Mean	Std. error	Teaching style	Mean	Std.error
Beginner(124)	33.0	1.04	Pre-recorded	30.3	.97
Intermediate(46)	31.1	.97	Realtime online	33.9	.96

연구 가설 3. 대학 신입생들의 전공(인문사회계열 vs. 자연이공계열)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선

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다(종속 변수: 학습감정, 개체 내: 녹화 강의와 실시간 화상수업방식, 개체 간: 전공). 그 결과는 Table 9, 10, 11과 같다.

Table 9, 10, 11은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전공별 긍정의 감정을 일반 선형 모형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온라인 수업 유형(개체 내: 녹화 강의 vs. 실시간 화상 수업), 전공(개체 간: 인문사회계열 vs. 자연이공계열), 수업 유형과 전공의 상호작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자연이공계열 신입생들의 긍정의 감정(56.5)이 인문사회계열 신입생들의 긍정의 감정(52.2) 보다 평균 4.3점정도 더 높았다. 또 자연이공계열의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59.3)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49.4)보다 평균 9.9점정도 더 높았다.

반면,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전공별 부정적 감정을 일반 선형 모형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는 두 수업방식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수업 방법과 전공의 상호작용 및 전공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생략).

Table 9. Tests of within-subjects effects (major & positiv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Teaching style	8369.8	1	8369.8	48.4	〈.01
teaching style*major	2268.2	1	2268.2	13.1	〈.01
error	29045.4	168	172.9		

Table 10.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major & positiv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Intercept	1000168	1	1000168	4926.7	〈.01
Major	1602.8	1	1602.8	7.90	〈.01
error	34105.5	168	203.0		

Table 11. Estimated marginal means (major & positive)

Major(n)	Mean	Std. error	Teaching style	Mean	Std.error
Humanities(79)	52.2	1.13	Pre-recorded	59.3	1.00
Science(61)	56.5	1.06	Realtime online	49.4	1.10

연구 가설 4. 대학 신입생들의 성별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선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다(종속 변수: 학습감정, 개체 내: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수업방식, 개체 간: 성별).

먼저, 긍정의 감정에 대한 일반 선형 모형 분석 결과 긍정의 감정에 대한 두 수업 유형과, 수업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남녀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생략).

Table 12. Tests of within-subjects effects (gender & negativ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Teaching style	861.7	1	861.7	5.64	.02
teaching style*gender	288.5	1	288.5	1.9	.17
error	25669.7	168	152.8		

Table 13.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gender & negativ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Intercept	341861.	1	341861.	2097	〈.01
Gender	1608.8	1	1608.8	9.87	〈.01
error	27387.7	168	163.0		

Table 14. Estimated marginal means (gender & negative)

Gender(n)	Mean	Std. error	Teaching style	Mean	Std.error
Male(78)	29.6	1.02	Pre-recorded	30.2	.97
Female(92)	34.0	.94	Realtime online	33.4	.97

Table 12, 13, 14는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성별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일반 선형 모형으로 알아본 결과로,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 방식과 성별의 상호작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녀 간의 부정적 감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수업 유형과 무관하게 여학생의 부정 감정(34.0)이 남학생의 부정 감정(29.6)보다 평균 4.4점정도 높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4년제 B사립 대학교에서 2020년도 교양영어 수업을 1학기에는 녹화 강의로, 그리고 2학기에는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수강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감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영어 과목의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라 대학 신입생들의 학습 감정이 다른 지를 알아본 결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1$).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

(59.3)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49.7)보다 평균 9.6정도 높았다. 감정별 순위를 보면, 긍정의 감정에서 녹화 강의 수업이 실시간 화상 수업보다 더 '편리하고'(3.7점 차이), 더 '만족하며'(3점 차이), 더 '재미있다'(2.3점 차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의 감정에서는 실시간 화상 수업이 녹화 강의 수업보다 더 '긴장되며'(2.6점 차이), 더 '피곤하고'(1.5점 차이), 더 '귀찮지만'(0.8점 차이), 녹화 강의수업이 실시간 화상 수업 보다 더 '게을러진다'(1.5점 차이)는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감정을 비교 조사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결과[6-8]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온 것을 참고하면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유형에서 녹화 강의 수업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 신입생의 영어 수준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p < .01$),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과 관계없이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59.1)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48.8)보다 평균 10.3점정도 높았다. 반면, 부정의 감정은 수준과 상관없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부정의 감정(33.9)이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부정의 감정(30.3)보다 평균 3.6점정도 더 높았다.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른 온라인 학습 유형의 선호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영어 수준에 따른 학습 감정을 조사한 선행연구[5]에서는 초급반이 중급반 보다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이 모두 높게 나왔다. 따라서 영어 수준에 따른 학습 감정의 차이와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차이가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신입생의 전공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긍정의 감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p < .01$), 부정의 감정에서는 전공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별로 보면 자연과학계열의 긍정의 감정(56.5)이 인문사회계열의 긍정의 감정(52.2)보다 평균 4.3점정도 더 높았다. 또 자연이공계열의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59.3)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49.4)보다 평균 9.9점정도 더 높았다. 한편, 전공에 따른 학습감정을 조사한 선행 연구[1]에서는 인문계열학습자가 자연계열 학습자보다 부정의 감정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 다른 선행 연구[4]에서는 인문계열 학습자가 자연계열 학습자 보다 긍정의 감정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부정의 감정은 자연계열 학습자가 인문계열 학습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이 전공에 따른 학습 감정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신뢰도가 높은 연구 집단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 신입생의 성별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긍정의 감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부정의 감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1$). 수업 유형과 무관하게 여학생의 부정 감정(34.0)이 남학생의 부정 감정(29.6)보다 평균 4.4점정도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 편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3-4]. 성별 간 다른 학습 감정은 교수자의 학습지도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은 온라인 수업 유형(녹화 강의 vs. 실시간 화상 수업)에 따라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이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에서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영어수준, 전공,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B대학 신입생의 약 10%정도의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 심층 면접을 통해 특정 학습 감정에 대한 이유나 원인 등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른 대학신입생들의 학습감정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교육 방법이 코로나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B대학은 2022년 1학기 수업이 전면 대면으로 공식 전환되었지만 실제로는 대면과 비대면의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도 요구되고 활용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감정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학습 환경에 따라 학습자의 감정이 달라지고, 학습 감정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REFERENCES

[1] B. S. Kim & O. H. Park. (2019). The Study of emo-

tions in college English classes for freshmen in local universities.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igital Convergence*, *61*(4), 237-262. DOI : 10.18853/jjell.2019.61.4.011

[2] R. Pekrun, T. Goets., W. Titz, & R. P. Perry. (2002).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a program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7*(2), 91-105.
DOI : 10.1207/S15326985EP3702_4

[3] E. J. Kim & M. H. Yang.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academic emotions of Korean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3), 501-521.

[4] N. M. Shin & J. H. Park. (2019). An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emotions in the classroom: gender and major difference.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7*(1), 23-47.
DOI : 10.18230/tjye.2019.27.1.23

[5] O. H. Park. (2021). A convergence study on university freshmen's academic emotions towards English: Difference depending on level, team-teaching & communicative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4), 369-375.
DOI : 10.15207/JKCS.2021.12.4.369

[6] M. H. Ryu & J. E. Jung. (2020). A research on perception of freshmen college students about the online classes in Teac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0*(2), 309-329.
DOI : 10.34245/jed.40.2.309

[7] D. J. Lee & M. S. Kim. (202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59-377.

[8] H. J. Chung, A. L. Kim, & H. N. Joo. (2020). In the COVID-19 crisis, a study on the types of perceptions on online class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 1359-1381.

[9] W. K. Choi. (2020). Comparis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general English classes in a graduate school: A case study and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9*(4), 223-245.
DOI : 10.18649/jkees.2020.19.4.223

[10] H. S. Lee. (202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ofessors and learners on the remote learning of university education- Focused on the cases of M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23*(3), 377-395.
DOI : 10.30807/ksms.2020.23.3.007

[11] I. J. Park. & K. H. Min. (2005). Making a list of Korean emotion terms and exploring dimendions underlying them.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19*(1), 109-129.

박 옥 희(Ok Hee Park) [정회원]

- 198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학학사)
- 1998년 6월 : 뉴욕주립대학교 교육공학과(SUNY at Albany)(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08년 3월~현재 : 배재대학교 기초교육부 교양영어 교수
- 관심분야 : 학습자 감정, 메타 분석
- E-Mail : okpark@pcu.ac.kr